



CPA. 416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정대균 저음 | 이경덕 옮김

정대균
1948년
미국에서
학했다.
대학 인
상호 이
저서 『
』와
인은 한
년)와
이 있다

물건이
1964년
에서
저서로
이 있
로 보
문』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펴낸날 2000년 1월 22일

저음이 정대균

옮김이 이경덕

펴낸이 완승오

펴낸곳 도서출판 강

출판등록 1995년 8월 24일(제10-1196호)

주소 (121-240)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6-6번지 2층

전화 3141-0195(편집) 3141-8041(영업)

팩시밀리 3141-0196

값 9,000원

『日本の人』

Copyright © 1998 by Chung Daekyun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 in 1998 by Chuokoron-sha,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0 by Kang Publishing Co.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through Imprima Korea Agency, Seoul.

Translation Copyright © 2000 by Kang Publishing Co.

*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Imprima Korea Agency를 통한 Chuokoron-sha, Inc.와의 독점 계약으로 도서출판 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89-8218-047-8 03900

강



5701

차례

머리말 · 7

서론 일본이란 무엇인가 · 11

제1장 여론 조사의 결과 · 25

‘약당’과 ‘선인’의 이미지 · 30
변화와 안정성 · 36

제2장 세대 차이 · 53

식민지 세대 · 55
한글 세대 · 72

제3장 상호 조망의 궤적 · 87

첫번째 시기(1945~1965년) · 89
두번째 시기(1965~1982년) · 94
세번째 시기(1982~현재) · 98

제4장 명시와 회의 · 109

문화적 우월 의식 · 111

회의의 눈 · 131

제5장 또 하나의 시각 · 143

어떤 심포지엄 · 145
문화적 위화감 · 152
이론 · 반론 · 157

제6장 경의와 예찬 · 173

공정적인 말투 · 176
사람의 일본론 · 195

제7장 반일주의의 행방 · 207

저자 후기 · 219
역자 후기 · 223



저자 주 · 227
시할 색인 · 243
인명 색인 · 245

한국에는 '한자(한문) 세대' '일본어 세대' '한글 세대'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한자 세대'는 가정과 서당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童蒙先習)』(16세기에 만들어진 어린이용 교재)을 배운 세대를 가리키고, '일본어 세대'는 일본어를 '국어'로 배운 세대, '한글 세대'는 해방 후에 한글을 '국어'로 배운 세대를 가리킨다.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 이들 세 세대를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로 나누는 세대론이 존재했다. 유교 세대인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세대인 아버지 세대는 '반일'을 표방하면서도 과거에 대해 온밀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 그 뒤를 잇는 한글 세대야말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 사회에서 자아 형성을 한 사람들로 참된 한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다. 이것이 이 세대론의 골자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990년대 후반에 이른 오늘날 '할아버지·할머니 세대'라 부를 수 있는 층은 '한글 세대' 가운데 연장자와 '일본어 세대'를 합친 연령층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 '일본어 세대'를 '식민지 세대'라 부르고 그들과 '한글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과 태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세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일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지닌 넓이와 깊이를 엿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식민지 세대

오늘날 60대 중반을 넘어선 식민지 세대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

는 것은 일본 통치기에 초등학교에 다녔거나, 일본의 활동사진이나 만화에 빠진 적이 있거나, 일본인과 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는 체험 일 것이다. 이런 체험은 당연히 항수를 동반한다. 현재 한국에서 국 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김중필金鍾泌(1926년생, 1971~1975년에도 국무 총리 역임)은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일본인에 대해 처음으로 의식한 때는 일곱 살 무렵이니까 1933년 쯤 되겠군요. / 그때 우리 가족은 백제의 옛 도읍인 부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여의 유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좋은 삶든 다른 한국인보다 일본인과 접촉이 많았는데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첫번째 일본인은 아마 경찰서장일 겁니다. / 정월 초하루 같은 날이면 위엄 있게 옷을 차려입은 서장이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곤 했죠. 술을 마시는 동안 허리에 찬 칼이 걸리적이면 왼쪽 다리를 조금 움직여서 옆구리 쪽으로 돌려놓았는데, 그때마다 칼이 덜그럭거리는 큰소리가 났어요. 지금도 그 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중략)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인들과 접촉은 많았지만 일본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듯했어요. (중략) 밖에서 술을 드시고 돌아온 날은, 내가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하는 말을 자주 하셨으니까요. (중략) 당시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보통학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일본인 아이들만 다니는 심장尋常小학교라는 것이 있었지요. 우리는 평소 일본인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소학교 아이들과 자주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단적인 싸움을 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면 곧바로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 싸움이 벌어졌다

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인 선생이 달려오면 우리는 거미 새끼 흩어 지듯 와 하고 도망을 쳤는데 온 나뭇가 잡히면 뱀을 몇 대 얻어맞게 됩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는데 우리만 얻어맞고 일본 아이들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길에서 만나면 난 뒤야 하며 싸움이 벌어졌지요. 저도 자주 싸웠습니다. / 물론 일본인이 모두 나쁜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백제의 폐허를 복원하고 유적을 보존하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도 주위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인 작가 하근찬河瑾燦(1931년생) 역시 일본 잡지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내가 처음 본 영화는 일본 사무라이 영화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다. 물론 일제시대였다. 그 당시에는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불렀는데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진은 너무나 신기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사무라이들의 모습도 신기했고 특히 칼싸움을 하는 장면이 완전히 매료되었다. / (중략) 내가 처음으로 본 그림책도 역시 일본 ‘고단샤講談社の 그림책’이었다. 『사십칠사(四十七番)』라는 제목이었는데 역올리게 죽은 영주의 복수를 감행하는 무사들의 이야기로 너무나 재미있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다. 나는 그 그림책을 가방 속에 넣어 학교로 가지고 다녔으며, 1학년 때 산 것을 3, 4학년이 될 때까지 소중히 보관하면서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 (중략) 내가 처음으로 읽은 만화 역시 일본의 『노리쿠로』라는 만화였다. 동물을 의인

회한 일본군—당시는 황군—의 우수성을 암암리에 표현한 민화였는데 그것 역시 재미있었다. 그 만화를 읽으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 노라쿠로처럼 용감한 병사가 되어야겠다고까지 생각했다. 그것은 3학년이나 4학년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²

모두 유소년 시절의 향수 어린 추억을 말하고 있지만 어조가 다른 예도 있다.

내 고향인 목포는 다른 신항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중략) 단번에 구분할 수 있었다./건축 양식도 다르지만 일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비동편의 눈금처럼 정연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있고 (중략) 항구와 가까웠다.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인 동네는 (중략) 산기슭에 방울이 매달려 있는 처처럼 보이고, 빈민窟을 연상시키는 작은 집들 사이로 군데군데 고풍스러운 집이 4, 5채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건물이 (중략) 동네 중심에서 있었다. 그것이 남교동南橋洞시장이었다. 이 시장 주위에는 많은 영세 상인들이 노점을 하면서 생활했다./시장의 정문 앞에는 비교적 넓은 공터가 있었다. (중략) /그곳은 언제나 혼잡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중략) 늘 그곳에 모여드는 노점상과 그들을 몰아내려는 순사들 간의 술래잡기는 좋은 구경거리였다./어느 날의 일이었다. 평소처럼 도망을 치던 노점상 가운데 하나가 그만 순사에게 잡히고 말았다. 잡힌 사람은 나이가 50이 넘은 노인이었다. 키가 작은 이 노인은 뼈때 말랐고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주름투성이인 남자였다. (중략) 지게에 배를 잔뜩 지고 와서 팔고 있

었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빨리 도망칠 수 없었다./노인은 순사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벌었는데 멀리서 보기에 너무 딱했다. 그런데 순사는 상인이 머리를 숙일 때마다 짐바구니 속의 배를 하나씩 꺼내 짐바구니의 날카롭게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꽂는 게 아닌가. (중략) /일본인 순사가 짐바구니 속에다 배를 던져서 꽂는 것과 노점상이 허리를 굽히며 질하는 동작이 저주스러운 조화를 이루면서 비극적인 리듬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광경에는 몰려든 구경꾼들로 움푹달췌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³

지금쯤 내가 태어난 목도(절영도)(지금의 영도: 울진)와 부산 시가지 사이에 개척식 쇠다리가 놓여 있지만 당시에는 8톤 중기선이 왕복하면서 사람을 운반했다. 어느 날 이 배에서 내 앞에 앉아 있던 조선 청년 하나가(섬에서는 손꼽히는 지식인이었다) 구두를 신은 채로 한쪽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같은 섬에 있는 요네즈네米糠상점이라는 찰집의 열여덟, 아홉 살쯤 된 애송이에게 “더럽잖아,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게다가 신은 발에 견어치가는 모욕을 당했다./순간 재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그 청년이 요네즈네의 애송이를 들어올려 바다에 던져넣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일교여덟 살 난 아이의 생각이었다. 그 청년은 물론이고 배에 타고 있는 조선인 누구 하나 이 무법지를 말리지 않았다. 그 청년은 분노를 참느라고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올랐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같은 배에 탄 백의 민중은 얼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중략) /나는 요네즈네의 애송이를 증오했지만 그보다 동족의 그 기가 없는 모습과 오기 없는 모습이 더 싫었다. ‘어른이 되

면 제일 먼저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그날 작은 가슴에 새긴 그 맹세는 50을 눈앞에 둔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다. 살인 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무체함은 용서할 수 없다—살아오면서 성기신 일을 많이 겪게 만든 나의 손해보는 성격, 손해보는 기질의 뿌리를 찾는다면 40여 년 전 어느 날 요네츠네상점의 애송이에게서 비롯된 것이다.⁴

다른 한편에는 '내지'(일본)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있다. 임문환氏(女權(1907~1994년))은 1923년 고향 친구와 함께 대전을 출발해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로 간 다음 거기서 교토로 가는 열차에 탰다. 그는 '내지'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⑤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많은 지배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자 두 소년의 마음은 절로 불안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동료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의식하면서 병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조심하며 앉아 있었다. 조선어로 말을 하거나 서툰 일본어로 말을 하면 주위의 지배 민족들에게 '조선놈들'이라고 욕을 먹을 것이 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이무리 조심해도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었다. 두 소년은 어쩔 수 없이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플랫폼을 돌아다니며 파는 도시락을 샀다. (중략) 두경을 열자 나무 상자 안에는 허안셀 방법이 가득했고 한쪽에는 반찬이 수북했다. 이 정도라면 이무리 처음 보는 일본 도시락이라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락 한가운데에 살구를 담은 과일 하나가 박혀 있었다. 크기는 살구보다 조금 작았지만 색깔은 노란 살구와 달리 선명한 주홍색이었다. 한번 보기만 했는데도 황홀한 정도로 맛있어 보였다. 바우덕

(저자의 야병 : 인용자)은 그것을 입에 넣고 살구를 먹을 때와 같은 요령으로 어금니로 살짝 깨물었다. 바로 그 순간 한번도 맛보지 못한 신맛이 바우덕의 온몸으로 퍼졌고 몸 전체가 심하게 떨렸다. 너무 놀라 당황한 그는 달리고 있는 기차의 창 밖으로 그것을 빨고 입 속의 침이 마를 때까지 계속 침을 빨았다. (중략) 맛은편에 앉아 있던 지배 민족 노부부가 바우덕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바우덕이 창에서 목을 빼기를 기다렸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이를 계기로 바우덕을 놀라게 한 우메모시(일본인이 식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 먹는 매실장어찌 : 옮긴이)의 설명에서부터 그의 고향 산천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중략) 그 사이 바우덕은 의외의 사실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피통치 민족인 그는 자신에 대한 경멸이라면 그것이 이무리 미세한 것이리도 파악할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중략) 그 때문에 대동한 인간으로서 무리한 일을 강요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지배 민족의 경멸이 담긴 시선을 만나면 비록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해도 반드시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죽기 전에 언젠가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없이 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새로 편입된 일본인(新附日本人(조선인인을 가리킴 : 옮긴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이었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3등석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노부부에게서는 경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바우덕이 우메모시에 당황해도 두 일본인은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을 뿐이다. 너무 귀엽다는 듯이 배를 움켜쥐고 웃는 인간적인 순진함은 바우덕을 그 웃음 속으로 끌어들이는 정도로 드문 것이었다. 과거에 일본인과 마주했을 때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명랑함이었다. (중략) 시간이 지나면 서기차 안의 승객 전체가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일본인과 똑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가 오죽을 누기 위해 통로를 지나다녀도 조선인 주체에, 또는 건방진 놀이라는 눈빛으로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일본인이면서 충청도 금산(鎭山) (부덕의 고향: 옮긴이)으로 흘러든 일본인과는 인종이 다른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 (중략) 기차 안에서 발견한 경이로운 세계는 나중에 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그 후에도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가끔 체제(體制) 문제로 자신이 조선인임을 떠올리게 만든 것을 제외하면 일본인 개인에 의해 자극 받은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쩌다 고향에 들르면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조선인이라 의식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은 경찰과 오랫동안 조선에 산 일본인과 그 자식들이었다.

같은 해(1923년) 관동대지진 때문에 도쿄를 떠나 오사카에서 생활하고 있던 김소운(金素雲)(1908~1981년)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다. 김소운은 열두 살부터 서른일곱 살까지 일본에 단속적으로 체류했고 『조선 민요집』(1929년), 『조선 동요선』(1933년), 『조선 민요선』(1933년) 등의 작품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다음은 그가 열다섯 살 때 겪었던 체험이다.

지진 때문에 도쿄의 하숙을 뛰쳐나온 나는 오사카에 있는 친척에게 의지해서 반년 정도 살았다./ 어디서 났는지 훌쩍이 있기에 그것을 입고 어느 날 이철 다마쓰쿠리(玉澤)에서 아베노하시로 가는 전차를 탔다. 달리 입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진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가 떠돈 것이 한복을 입게 된 원인이었다. 6천 명의 조선인이 죽창에 희생된 직후였다. 일부러 한복을

입고 일본인 속을 걸어보고 싶다는 께기와 반발 의식이 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 친척이 불뻗기 때문에 나는 인으로 들어가게 않고 차장 뒤에 서 있었다. 그러자 차장이 “자, 안으로……”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것을 만지듯이 두 손가락 끝으로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갖 뻗 새하얀 한복은 차장의 소매 아래로 나와 있는 셔츠보다 훨씬 창결할 텐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손동작을 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뭐야 그 손놀림이…… 말로 하면 되잖아!”/ 나는 사나운 눈초리로 차장을 노려보았다. “뭐라고…… 너 이 자식 건방지게!”/ 차장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선놈 주체에라는 모멸감이 담긴 눈초리로 마주보았다. “이 자식? 이 자식이라고. 오사카 전기(電氣)局(氣局)은 손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는 모양이지. 이 한 번 더 말해봐!”/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나의 생각지도 못한 심한 반격과 한복과 어울리지 않는 유창한 일본어에 적은 열매간 누그러진 말투로 “몇 번 이리도 말해주지…… 귀한 분이라고 써 갖고 다니지 그래. 이 자식 이런 말이 뭐가 나빠……”라고 말했다./ “그래? 귀한 분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앞드려 빌어이지. 옛날 같으면 참형이야. 이 바보 같은 자식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사이에 전치는 달리기 시작했고 호소구(細工谷, 모모이(桃谷)를 지났다./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스무 살도 되지 않아 한창 건방질 때였다. 일본인의 까닭 없는 우울감 때문에 몸 속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듯했고 막 전의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몰려날 수 없었다. 육살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전치는 종점인 아베노하시에 닿았다./ “왜 그래. 이야기 끝내이지.”/ 나는 종점에 모여 있던 운전수와 차장에게 에워싸인 채 거의 끌려가다시피 승무원들에게 이끌려 갔다. 거의 이삼십 명.

살기등등한 그들이 “해치위, 해치위. 건방진 자식이야!”라고 외치면 서 내 주위를 빙 에워쌌다./전차 안에서는 호기를 틈에 맞서면 나도 이렇게 되자 불쌍한 포로일 뿐이었다.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다고 단단히 각오한 순간 천둥처럼 큰 목소리가 내 등뒤에서 들려왔다./“기다려! 이 바보 같은 놈들!”/뒤를 돌아보자 마흔 살 정도의 키가 작은 중년 신사가 반면에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치장들을 노려보고 있었다./“창피도 모르는 놈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상대를 해주지!”/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말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분노로 불타오르는 눈에 어렴풋이 눈물이 어둠 있는 것을 본 순간이었다.⁶

앞서 글을 인용했던 임문환은 이 당시 교토의 어느 작은 정련소에 서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지전에 대해 이렇게 썼다.

격렬한 지진으로 이성을 잃은 도쿄 출신 사람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활달한 기질을 버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본성으로 돌아가는지 허황은 소문에 눈이 멀어 새로 편입된 일본인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화살했다. 무기를 가지지 않은 민중에 의한 민중의 대량 학살은 20세기 인류사에서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일본인 전부가 게 이런 전인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중략) 이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새로운 일본인(조선인: 韓人) 노동자를 그들의 출생지로 강제 송환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일본 천황 폐하가 합병 이후 동일한 적자로 인정하고 ‘일시동인(一團同仁)’의 선정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식민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일본에 흘러든 난민 무리들이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조선에 흘러든 일본인은 일본 내에 사는 일본인보다 이득을 얻고 조선 내에 사는 조선인은 일본에 흘러든 조선인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손해를 보는 곳으로 돌아 가려는 말에 쉽게 따를 수는 없었다./바우덕이 사는 곳에도 밤이 되면 언제나 행사가 찾아왔다. 기치를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달려기도 하고 위협도 했다. 그래서 바우덕은 직역을 먹으면 호리카와(堀川) 다리 건너 니시진(西陣)에 있는 공원으로 피했다. 벤치 위에서 밤을 보 냈다. 교토의 9월의 밤은 꽤 추웠지만 고향에서 맛본 고통과 비교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행사가 오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일본 정부가 난세의 어긋난 도리에서 처세의 이 치로 돌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식민지 세대의 추억에는 다양한 일본인이 등장한다. 그들은 다양한 일본인을 만났고 당연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좋은 일본인’도 있고 ‘나쁜 일본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족과 역사와 가치관의 큰 전환을 체험했다는 점이다. 즉 해방 이후 이들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항수를 드러내기를 스스로 금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앞에서 두번째로 글을 인용한 하근찬은 1984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했는데 그때의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으로 받은 디더보는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옛날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8

풍경에 친밀감까지 들 정도였다. (중략)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비록 일시적이라 해도 친선 도모를 의미한다. 그런 뜻인지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두 번 일본에 갔다 왔을 뿐인데도 나중에 서울 거리에서 일본인을 만나면 예전처럼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얼마간 친밀한 감정이 생겼다. / 또한 솔직히 고백하건대, 일본에 머무는 동안 내 내면 깊은 곳에 잠겨 있던 일본에 대한 향수와 같은 것이 가만히 머리를 내미는 듯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어릴 때 스며든 일본 문화와 당시의 기억 등이 어렴풋한 그리움과 함께 살아났다. 추억은 언제나 이름다운 것이기 때문일까. 식민지 시절의 소년 시대가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더니... 그것도 과거의 암재지였던 그 나라에 와서 그것을 느끼다니.*

이러한 자기 갈등을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비유한 사람은 언문학자인 최정호崔正鎭(연세대학교 교수, 1933년생)다.

‘황국신민의 세대’의 불행은 (중략) 일제하에서의 그들의 어린 시절이 반드시 불행했었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제하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린 시절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회의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그러나 그들이 장성한 훗날, 해방된 독립국민의 눈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을 회고해보면..... 모든 사람들처럼 타민지 않은 추억에 찾을 수 있는 행복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다. 그 병정놀이, 그 화려한 퍼레이드는 자기네 조국을 짓밟았던 침략군의 군대의 병정놀이요, 퍼레이드였고, 불이 터지도록 부르던 노래와 누나가 들려준 자정기는 우리들의 말과 글을 빼앗은 일본의 노래요, 그들을 감동케

한 이야기책이란 모두 다 일본의 그것이었다. / (중략) 황국신민의 세대란 어떤 의미에선 자기 친부를 죽이고 자기의 친모를 강간하고 고민하는 외디푸스의 콤플렉스를 가진 세대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싶다. / (중략) 그들이 어렸을 때의 봄은 분명 빼앗긴 들에서의 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성은 분명하게 그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편에선 그들의 감정은 (중략) 제 생애의 두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유일한 어린 시절의 봄에 대해서 (중략) 사랑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네들의 의식 분열이고, 인격 상실이랄까 할 것이다. / 그래서 한낮에 입으로는 일제의 과거를 핏대를 울려 열렬히 규탄했다가도 밤이 되어 노끈한 몸에 술이나 한잔 들어가면 일본 대중가요의 ‘홀리간 멜로디’에 속절없이 감성感傷하고 마는 것이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한 최영숙崔靈淑이라는 여성에게는 단카短歌(일본의 전통 시가 양체: 음진이)가 자기 표현의 방법이였다. 한국전쟁 중의 어느 날,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시인 김소운의 집에 피난민 차림의 한 여성이 찾아와 월을 한 공책에 연필로 쓴 70수 정도의 단카 원고를 놓고 갔다. 집안 사람에게 맡기고 간 그 원고를 김소운은 나중에 한국과 일본의 잡지¹⁰⁰에 소개했다. 첫번째 단카는 조국의 언어로 자신의 참된 감정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시회하는 노래였다.”

마음을 조국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라 과도기에 태어나

major ms
valuable

Complex
a. Cedyle

홀리와 남쪽 끝에서 낙엽을 쓴다
노인 노파가 되었구나

동쪽을 죽이고 죽음을 당하기 몇 십 번
아 화목하세요 같은 동포이니까

꿈임없이 기도하며 땅에 앞드리면
군화 소리 울리는 듯하네

지금은 이 생업에 익숙해져
바닥에 깔려 있는 솔잎의 아름다움도 본다

그녀의 두 아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전사했는데 그녀는 1
년 정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젊은 날 낳아 기르고 늙어가는 것을
여자는 슬퍼하고 아이들은 모두 전쟁에 나간다

내가 일어나 이 산맥과 하나가 되고
전쟁터로 나간 우리 아이들은 싸우고 있겠지

언제일까 싸움을 끝내고 그들이
씩씩하게 돌아올 때가

나날이 혼란스러워지는 나라

젊은 생명이 스러지는 것이 슬프다

(아들의 전사를 알았다: 인용자)

작년 이맘때 빛나던 푸른 잎으로 덮인 산골짜기에서
우리 아이들 싸우다 하늘로 날아갔을 뻔

동해의 무궁화 꽃 피고 아름다운 나라
혼란 가득한 슬픈 백성이여

별 두 개 저녁 하늘에 의 좋게 나오고
세상에 있던 날의 우리 아이들과 비슷하고

해방 이후 식민지 시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마음과 몸의 습관
을 바꾸고, 과거에 대한 항수를 억압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러
나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동원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상' 과
'감정' '공' 과 '사' 사이에서 자기 분열과 자기 모순이 없는 식민지
세대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인용한 예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한 담론으로 스스로에 대한 회의를 동
반한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회의는 중요하다. 왜냐
하면 스스로에게 회의적인 사람이 타인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종류의 담론들은 해방 후의 한국에서 공격
당하기 쉬운 것이며 예외적인 것이다. 이 세대가 과거에 대해 말할
때 좀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체국주의와 반식민주의라는
해방 후의 정치적 구별political correctness(원래는 '인종적·민족적·성적으로 소
수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저자는 정치적 판단이나 평가, 행위 등

의 기준이 되는 것' 정도의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육진이)에 따라 식민지 시대를 말하려는 태도다. 예를 들면 다음의 시는 차기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앞의 단기와 비교하면 편안한 인상을 준다. 지은이 문명란(文明蘭(1935년생))은 식민지 세대의 가장 뒤쪽에 속하는 시인으로, 인용은 「식민지의 국어 시간」¹²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의 앞부분이다.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20리를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 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작로 위엔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놈에게 불어야 잘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말도 글도 생까지도 죄다 빼앗겼던 우리,

히노마루(일창기: 육진이) 앞에서

아이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선징의 새끼는 항상 기타나이(더러운 놈: 육진이)가 되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선징,

뺨을 때린 히어시 센세이(선생: 육진이)는

왜 나더러 일본놈이 되라고 했을까.¹³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해방 이후의 정치적 규범에서 일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려는 태도인데, 이보다 더 일관적인 것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피해자라는 집단간의 관계라는 시점에서만 말하려는 태도, 즉 식민지 시대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해방 이후 한국에 무수하게 나타난 것은 이런 종류의 획일적인 식민지 시대론이다. 다음의 글은 그에 가운데 약간 파격 한 것이다.

1930년대에 들어선 일제의 대한 정책은 31년 9월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재편성하고 일제 문화의 퍼시즘화에 발맞추어 '황국신민화'라는 이름의 '이일본인포대 本人'적 노예화, 더 나아가서 일본어 상용, 일상 생활의 일본화, 창씨개명까지 자행하여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한국 민족을 말살하려는 '히틀러' 못지 않은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다./영국의 인도 식민지 통치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일제 식민지 침략만큼 잔인 무도하고 전혀 비인간적 민족 부정의 폭거를 감행한 것은 아니었다./일제 식민주의의 특색은 그 무한성에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화를 정치, 경제 면에 국한하거나 최소한의 피압박 민족의 자치를 용허하는 것 같은 유한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전인간적 예민화(義民化

였고 집단적 노예화였다.”

이미 서론에서 오늘날 한국 『쿠사』 교과서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술이 피해 시관과 저항 시관에 바탕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위의 글에서 난폭한 비유를 제거하고 말투를 조금 온건하게 바꾸면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강제, 수탈, 박탈, 착취, 박해, 탄압, 간악, 교활, 기만, 무자비’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지배의 기혹함과 부당함을 말하는 한편 ‘희망, 자각, 실천, 지혜, 용기, 정열, 신념, 애국심, 민족 정신, 민족 의식, 민족 문화’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저항의 힘을 말하는 방법이다.

한쪽에는 식민지 시대에 대해 항수에 찾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끔찍한 과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쪽에는 자기 갈등의 체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규탄·고발의 대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식민지 세대의 과거에 대한 말투에는 이처럼 몇 가지의 다양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방 이후의 위정자나 문화 엘리트가 후세에 전해지기를 희망하는 쪽은 후자로,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역사 교과서다. 한글 세대에게 부여된 것은 이처럼 적의와 증오에 바탕한 일본에 대한 시각이며, 그들은 이런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한글 세대

식민지 세대와 비교하면 한글 세대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는 마음

의 흔들림이 적다. 그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러 속 깊이 새겼고, 식민지 세대가 겪는 자기 갈등이나 자기 회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한국의 작문 교실’로 일본에도 소개된 다음과 같은 중학생의 작문은, 해방 이후 새로운 정치적 규범이 젊은 한글 세대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음을 가르쳐준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는 학생들이 1980년대 중반에 쓴 것이다.

일본, 일본인. 그들은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 선진 국민으로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부터 세계를 누비며 약 소국에게 큰소리 땡땡 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 기집이로 먹고 살면서 해적질이나 하던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약하게 살다가 갑자기 강해져서 우리나라를 노략질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민족은 일본인을 일본인은 한민족을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 미워하는 감정은 임진왜란을 거쳐 구한말을 지나 일제 침략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왜 싸우고 있나? / 첫째, 우리는 독도 때문에 싸웁니다. 그들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울릉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선시대부터 생떼를 쓰다 안되니까 이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들에게는 고치지 못한 어주 뽕뽕 병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면 그들의 국회를 통해 독도를 되찾겠다고 외칩니다. 나는 독도를 들쭉거리며 생떼를 쓰는 일본의 장관과 수상에게 독도 달라고 생떼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역사책이나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둘째, 교과서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역사책을 완전히 뜯

어 고쳐 자기 조상들이 무조건 잘했다고 썼습니다./어떻게 일본의 조선 침략이 진출이 되고 독립 운동이 폭동이 될 수 있으며 강요가 권유가 되며 징병이 학도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역사책 문제로 우리 나라와 중국이 항의를 하자 조금 주춤하더니 또 역사책을 고치려 하여 요번에는 일본 지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위의 일들로 우리는 지금 일본을 싫어합니다.¹⁵

‘일체 치하 36년’/나는 이 말을 자주 들어보았다. 하지만 나는 일체 치하를 경험해본 경험자는 아니다. 그러나 일체 치하 36년 동안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듣고 보고 읽었다. 그것들을 듣고 보고 읽노라면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 운동사를 알 수가 있었다./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탄압에 못 이겨 일어난 의병들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 외에 마음으로서 용맹과 지혜 지략을 겸비한 의병 대장이 있었으니 이가 바로 답살이 의병 대장 인구홍이다. 이 인구홍 대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마음 출신의 의병 대장 인구홍 대장은 용맹과 지혜 지략을 겸비한 그야말로 명장이었다. 나는 우리 나라의 어떤 유명한 인물보다도 더욱 본받고 싶은 인물이 바로 인구홍이라 하겠다./한 집의 일개 마음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독립시켜보겠다는 그의 큰 포부와 굳은 신념을 끝내는 실천으로 옮겨 답살이 의병을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중략) /내가 인구홍 대장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동안 나는 인구홍이라는 인물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 그러던 중 수업 시간에 알게 되어 그리면서 나의 본받을 인물

은 이 인구홍 대장이라 생각하였다. 훈련도 제대로 안된 일개 머슴들이 일본군 정예 부대와 싸워서 이겼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답살이 의병 대장 인구홍 대장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훌륭한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혜를 짜내 적을 섬멸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크게 이긴 이유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순수한 애국심이다. 이 순수한 애국심이 우리의 항일 운동의 기본 정신이라 생각한다.¹⁶

그러나 한글 세대가 언제나 정치적 규범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바로 위의 작문들이 찍어진 것과 같은 시기에 필자는 부산에 있는 어느 사립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여대생이 ‘나의 일본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일본어 작문을 제출했다.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올면 언제나 “순사가 잡으러 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순사’가 누군지 몰랐지만 항상 그 소리를 들으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나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는 아이를 잡아가는 순사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일본은 김초밥의 나라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소풍을 갔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초밥의 맛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김초밥을 좋아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좋아해서 김초밥을 먹기 위해 일본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나는 언제나 김초밥이 먹고 싶어 어머니에게 “김초밥 만들어줘요”라고 부탁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는 김초밥을 만드는 게 귀찮아졌는지 “김초밥만 먹으면 일본 사람이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김초밥이 먹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구사 시간을 통해 또 하나의 일본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일본 해적이 우리 나라 배성을 괴롭히고 경작지를 황폐화시켰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 나라의 보물을 많이 약탈하고 뛰어난 문화재를 파괴했으며 도공들을 끌고 간 나쁜 민족이라고 일본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약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지금보다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부터 일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에는 가끔 강한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중학생 때입니다. 그런 무서운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확실히 구분되는 세계질이 있고 자연 환경도 뛰어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동족끼리 싸울 때 군수 물자를 우리 나라에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나라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언제나 우리 나라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지금껏 지나지 못했던 문화를 얻거나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중학교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본은 선명한 색을 지닌 나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정 시간에 우리는 세계의 의복에 대해 공부했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일본의 기모노였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한 권의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기모노의 그림이 있었고 기모노에는 복숭아색 벚꽃과 나비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나비가 벗나무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일본이 좋아졌다고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왠지 일본에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평소에 살아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일본인 친구와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놀러온 이 친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미워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인사를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일본인 친구는 필요 이상으로 '고미워요'라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본의 이미지는?'이라고 묻는다면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고미워요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일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건악하다.' 이 말은 어떤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대상의 70%는 일본인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일본인과 만난 경험이 없지만 단일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과 일본인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인과 같이 사귀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인간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본인이 솔직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의 작문 교실’에서 본 중학생의 작문이 해방 이후 일본에 대한 정치적으로 옳은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여대생의 작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구별과의 갈등이다. 이런 종류의 갈등을 더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한글 세대가 일본을 체험했을 때다. 한글 세대는 일본을 보기 전부터 일본에 익숙해져 있다는 이상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는 일본과 일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나 판념과 그대로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사회 과목 선생을 하다가 지금은 간사이關西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유미幸有美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전후 세대라면 모두 그렇듯이 내 의식 속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반일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게 된 나는 내가 배운대로 ‘일본’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흡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한 피해자 의식이 있고 근대에 이르면서 적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략) 일본에 오기 전 겪었던 3년 동안의 교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불행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사에만 집착해서 이후 변화된 한일 관계와 일본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 별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려고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¹⁷

어느 젊은 저널리스트는 일주일 간의 일본 여행을 통해 한국에서 형성된 일본상이 부서졌다고 썼다.

일본에 대한 의식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문화일보사에 재직 중이던 1992년 7월에 7박 8일의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여행이었다. 주로 중소 도시와 농촌을 버스를 타고 도는 일본 속의 한국 문화 유산을 탐사하는 목적 여행이었지만, 잘 정돈된 지방의 모습을 보고 ‘아, 이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하는 실감을 했다./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배울 것은 선진 기술뿐이고 문화 면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다./그때 인상에 남은 또 하나는 ‘원질’이었다.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인에게도 예외 마르게 대해주는 일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형성된 내 일본상을 무너뜨렸다. 처음부터 다시 일본을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에게 제기되었던 것이다.¹⁸

일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공유하고 있는 한글 세대가 일본의 참 모습을 만났을 때 대부분 겪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의 교정이라는 체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선일보』는 작가 최인호崔仁浩(1945년생)가 연재하고 있던 『잃어버린 왕국』이 연재 500회를 맞이하자 저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최인호는 일본 체험이 문화적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토古土에서 펼쳐진 민족의 대모임을 탐험하기 시작했던 작가 최인호. (중략) 지난 15일로 연재 5백 회를 넘기면서 그

는 이런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영루하루 소설을 쓰면 쓸수록 일본의 고대사는 한민족의 이민사와 다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작품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정사에 입각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략) / 70년대 작가라는 호칭 아래 작품의 주제나 소재에서도 현대적 이미지만이 강렬했던 최씨가 역사소설이라는 다소 생경한 분야에 몰입하게 된 것은 하나의 묘한 인연 때문이었다. 84년 여름 ‘원해탄의 바키어로 사건’으로 불린 한일 지식인의 선상 토론(6장 주26 참고: 용진이)에 참가. 일본 명을 밝은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일본에 도착, 한일 고대사에 해박한 재일 작가가 김달수 金達濤 씨와 사학자 이진희 李進熙 씨를 만나 일본 명에 것들이 우리 문화의 흔적을 상세히 알게 되었지요. 함께 여행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백제, 신라, 고구려가 그곳에는 땅 이름, 건축물 이름 등으로 암연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 최씨는 그것을 해방동이인 자신의 역사에 대한 개인배려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 “이제까지 우리는 일본에 대해 무심했고 일본은 우리를 무시했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유심有心해야겠고 일본은 우리를 직시해야 할 겁니다.” / 『잃어버린 왕국』은 (중략)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최씨는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백제인이 삼나라에 세운 망명 정부”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버르고 있다.¹⁹

한편 일본 체험을 통해 일본의 부정성을 발견한 사람도 있다. KBS의 도쿄 특파원으로 1990년대 초 일본을 경험한 전여옥 田麗玉(1959년생)은 베스트 셀러가 된 『일본은 없다』²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라는 외국 땅에서 나는 수많은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중략) 이들의 이야기는 사실 단 한 가지이다. 요는 일본을 배우지는 것이다. 밟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 싶지만 일본이 우리의 목표이자 전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즉 일본처럼 되기 위하여 일본을 배우자고 주장한다. 일본에 가기 전에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2년 반이란 시간을 모뎀 지금은 절대로 일본을 배워서도, 일본처럼 되어서도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란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진국도 아니었으며 그렇게 잘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란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일본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비정상적이다. 일본의 모든 사회 구조와 인간 관계의 형태는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아주 단순한 도식이 성립된다. (중략) 그런데 묘한 것은 피해자 즉, 억압 받는 자의 태도이다. 일본에서, 없는 자들은 있는 자로부터 받는 압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를 즐기기도 하는 듯하다. 마치 길들여진 노예나 하인처럼 이들은 기뻐하며 순종한다. (중략) 길들여지고 지배받아야 편한 일본인들의 천성이 온종일 ‘경제 대국’을 이룩하게 했을 뿐이고 잔혹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²¹

이 같은 체험과 관찰이 회의주의와 연결된 예다. 저자는 일본에 오기 전에는 오히려 일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회의주의와 대항 의식도 일본에 오기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회의주의와 대항 의식은 전여옥과 같은 한글 세대의 엘리트들이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존심이나 자기 긍정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그런 높은 자존심이 갈등을 겪으면서도 승리한 사실을 기록한 부분인데, 한국인 독자들에게서 갈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뒤 나는 (중략) '치유가오카自由が丘'라는 동네에 집을 얻었다. / (중략) 그러나 한국인임에도 집을 내주겠다는 주인을 만난 것으로 나의 고난(?)은 그치지 않았다. 북덕방과 계약을 하러 가던 날, 나는 무척 지쳐 있었다. 이 일본이란 나라 사람들의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과 숨막힐 그리고 편견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북덕방의 내 담장은 와타나베라는 여자였다. (중략) 와타나베는 마치 친구매처럼 반색을 하며 나를 맞이주었다. / 나는 그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열쇠 꾸러미를 내 앞에 내놓으면서 말했다. / "덜지요? 손님께 좋은 집을 소개해 저도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요." / "오히려 덕분에 제가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제 보증인인 구와바라 씨가 한국에 가게 돼 인감증명서를 직접 이 북덕방으로 보내주신대요." /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무참하게 구겨졌다. / "땀리구요? 오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전 이 열쇠를 넘겨줄 수 없어요." / 순간 나는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 /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보요. (중략) 나는 이미 모든 계약을 마쳤고 돈도 다 지불했는데 (중략) 모래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그럴 나는 길바닥에서 자린 말이

예요?" / "그거야 딱의 사정이지요. 저는 어디까지나 주인에 대해 신공과 책임을 지킬 의무가 있지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 "더 이상 격해지는 감정을 억누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중략) / 그 여기도 지지 않으려고 했다. (중략) / 내 목소리가 커다란 사무실을 찌렁찌렁하게 울렸다. 다른 손님도 우리 쪽을 일제히 쳐다봤다. 당장 총책임자(점장)가 달려왔다. 그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와타나베에게 "전화를 거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토록 거만했던 그녀는 열른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했다. (중략) 와타나베는 생색을 잔뜩 내며 내게 말했다. "주인이 워낙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편찮습니다." (중략) /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물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당신 왜 그랬느냐고. / "이까 그랬잖아요. 보증인인 구와바라 씨가 한국에 간다고. 그 점에 의심이 잦어요. 왜 하필 한국이지요. 뭔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서요." / 당당하게 말한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 "당신네, 일본인들은 그토록 아시아인을 못 믿고 아시아의 이웃나라 일기를 그토록 우습게 알면서 왜 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먹는 거요. (중략) 노란 머리 파란 눈 에게는 두말 않고 집을 내주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집 빌려주기를 거부하면서 국제화를 이루겠다고? 한국이란 나라는 당신네 나라보다 돈이 없을지는 몰라도 선진국이요. 당신네 나라는 아시아 최하의 나라. 아시아의 후진국이요. (중략) 일본 이게 나라요? 그냥 삼이지." / 내가 연성을 놓여 이야기하자 지배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 "잘못했다고 비시오." / 그러자 참으로 놀랄게도 그녀는 단 일 초의 망설임이나 거부 의 움직임도 없이 내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 "손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 마치 자동판매기처럼 기계적으로 순식간에 준비된 것처럼 나오는 그녀의 인사말에 나는 가벼운 현기

증을 느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일본인이 사죄하고 사과한다는 것을.²²

회의주의와 대항 의식은 한글 세대가 넓게 공유하는 감각이지만 실체로 그것을 관철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을 체험하고 나면 타지에 대한 회의는 자신에 대한 회의로 그 방향이 바뀌고 또한 자기 긍정은 자기 부정 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체험하고도 자기 존중이란 생각이 흔들리지 않은 전여옥과 최인호는 예외적인 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의 출현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된 때이자 일본에서 ‘공생론(共生論)’이란 이름의 다문화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인 외국인이 일본 문화에 맞춰 자신을 바꾸기보다 다수인 일본인이 외국인에게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다문화주의(同化主義) 시대가 외국인의 이질성을 억압하는 것이었다면 다문화주의 시대는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어쨌든 새로운 환경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고, 전여옥의 경우 그녀가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하는 데 이바지한 듯이 보인다.

기름 일본 사람들이 내게 물어본다. 일본에 와서 어땠다고, 언제 나 내 대답은 이렇다. / “일본에 오기 전 수많은 나라를 취재하고 다니며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일본에 와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중군위인부 문제와 재일동포들의 차별

과 오늘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지켜보며 나는 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나는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일본이란 나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²³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었지만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두 말의 조합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반일 민족주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글 세대의 한국인이 아무런 자기 부정도 없이 코스모폴리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한글 세대에 속하는 한국인은 어쩌면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코스모폴리탄이 되기 어려운 인간일지 모른다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여옥의 글에서 특징적인 점은 자신에 대한 회의보다는 일본에 대한 회의이며 일본에 대한 공감보다는 대항 의식이다. 이 래서는 코스모폴리탄을 지향할 자격이 없다.

‘코스모폴리탄이 되고 싶었지만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위의 말은 자존과 자조 사이의 흔들림이라는 한국인의 오래 되고도 새로운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표현으로서 흥미롭다. 한국인이 일본을 대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적의나 열시가 자존심을 지탱하고 이와 반대로 경의나 공감이 자존의 감각과 함께 존재하는 일종의 제로섬(zero sum)적 상황으로 이를 뛰어넘는 심성은 좀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양면성 콤플렉스(ambivalent complex)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일본인의 이문화 체험과도 관계가 있다. 문명 개화 이후 일본인의 구미 체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는 상대를 이 상화하면서 거기에 심취하고 동화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상대에게서 위협감과 혐오감을 느끼면서 열시하고 이질화하려는 태도다.²⁴ 이

와 유사한 복합심리 complex는, 한반도 북쪽의 극단적인 독재와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동조적이지만 남쪽의 미지근한 그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인의 한반도에 대한 대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²⁵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에서 이 양면성 콤플렉스가 좀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는 쪽은 한국인의 경우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에 대한 공감 훈련이 결여되어 있는 한글 세대의 경우에 의외로 큰 탈레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본 전여옥의 일본 체험은 얼핏 의기양양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아픔이며 깨지기 쉬운 것이고 종이 한 장 정도의 무케밖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제3장 상호 조망의 궤적



15. 차재호,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지유공모 연구), 1992년.

16. 차재호, 같은 논문.

17. 알타이 콤폴렉스¹⁾에 대해서는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다루었는데 오후라 기조(小倉紀藏)의 다음의 글은 다시 인용할 가치가 있다. “일본인이 ‘한국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언제나 눈이 가늘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이 ‘일본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얼굴도 항상 눈이 매우 가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본인은 대체로 일본인이 연상하는 한국인의 얼굴과 닮았다. 눈이 가늘고 눈꼬리가 올라갔으며 광대뼈가 나오고 인장머리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 주인공은 반대로 서양적인 생김새를 한 남자가 많다. 여기에는 한 일 두 나라에 공통된 콤폴렉스가 반영되어 있다. 서로 자국민의 얼굴이 알타이를 초월한 콤폴렉스에 기댄다고 하는 희망적인 전제가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서양, 즉 알타이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늘고 꼬리가 올라간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잔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小倉紀藏, 『쇼와 최후의 서물(昭和最後のソウル)』, 157쪽, 草風館, 1992년)

18.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중국, 미국, 영국, 인도, 소련, 서독, 브라질, 프랑스 포함)의 중학교에서 1970년대 후반에 사용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교과서는 자화자찬의 정도(예국의 정도)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辻村明, 김규환, 生田正輝 편, 『일본과 한국의 문화 마찰』, 157쪽)

게이오(慶應) 대학 이토 요이치(伊藤陽一) 연구회의 기호화-coding 분석에 따르면 자화자찬의 정도가 높은 곳은 한국 82.36, 소련 53.93, 인도 35.16, 중국 31.91, 브라질 21.01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낮은 곳은 일본 교과서 B -4.48, 프랑스 -0.14, 서독 2.44, 일본 교과서 A 3.21, 영국 5.39, 미국 8.2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일본 교과서 B와 프랑스 교과서의 자국 평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교과서 A는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고 일본 교

과서 B는 좌익적 편향) 지적된 적이 있는 교과서다.)

일본에 대한 평가는 한국이 -18.06으로 독보적으로 부정적이며 뒤를 이어 중국 -5.1, 일본 교과서 B -4.48, 소련 -0.94 순이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기우는 쪽은 일본 교과서 A 3.21, 영국 0.61, 서독 0.28의 순이다.

플리스 이미지에서 마이너스 이미지에 이르는 수치를 스펙트럼에 비유하면 일반적으로 선진국형의 스펙트럼은 그 폭이 좁고 개발도상국의 것은 넓게 나타나는데, 한국의 것은 특히 넓다. 즉 한국 교과서의 특징은 지나친 자국 예찬(+82.36)과 지나친 일본 부정(-18.06)으로, 양자가 상보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 日韓二十一世紀委員會, 『일한21세기위원회참고논문집(日韓二十一世紀委員會參考論文集)』, 1991년.

20. 辻村明, 김규환, 生田正輝 편, 『일본과 한국의 문화 마찰』.

21. 표3에서 표13까지 표8과 표11을 제외하고 숫자를 약간 조정했다. 또한 표 6의 일본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에서 각 세대를 더한 합계가 582지만 그러면 괄호 안은 29.1%가 된다. 수치에 차이가 나지만 그대로 표기한다.

제2장

1. 『소문(諸君)』, 1980년 4월호.

2. 『분개이(文藝)』, 1988년 여름호.

3. 윤창광(尹淸光) 편, 『잊을 수 없는 일본인—조선인의 원한과 애석(忘れ得ぬ日本人—朝鮮人の怨恨と哀惜)』, 161~164쪽, 六興出版, 1979년.

4. 김소운(金素雲), 『마음의 벽(心の壁)』, 66~67쪽, 카이랄출판회, 1981년.

5. 임문환, 『사랑과 민족—어느 한국인의 체연(愛と民族—ある韓國人の提言)』, 44~46쪽, 同成社, 1975년.

6. 김소운, 『마음의 벽』, 82~84쪽.

7. 임문환, 『사랑과 민족—어느 한국인의 체연』, 51쪽.

8. 『분개이』, 1988년 여름호.

9. 최정호, 『일본과 독일과 우리』, 『세대(世代)』, 1970년 8월호.
10. 『후진가호우(婦人叢報)』, 1953년 6월호.
11. 김소운, 『머음의 벽』, 12~22쪽.
12. 문병란, 『망의 연가』, 114~117쪽, 창작과비평사, 1981년.
13. '히노미루, 조센징, 기타나이'는 원음 표기 그대로다. 이 어휘들은 일본인에 의한 지배와 멸시를 상징하는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히어시(林) 센세이'는 '임(林)'이라는 한국 청을 창씨개명식으로 읽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 시를 소개한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濤)는 말한다(『川村濤, 『이사이』라는 것을—극동이라는 근대(近世といふ鏡—極東といふ近代)』, 166쪽, 思潮社, 1989년).
14. 신일철(申一澈), 『일제의 한국 문화 침탈의 기초』, 『신동아』, 1971년 9월호.
15. 도중환(都鍾煥) 편, 『이 땅의 아이들』, 142쪽, 온누리, 1984년.
16. 도중환 편, 같은 책, 143~144쪽.
17. 제9회 '재일유학생을 위한 연구조성금' 입상 논문, 『산케이(産經) 신문』, 1996년 5월 1일자.
18. 이한우(李翰雨), 「국가 일본과 사회 일본(『國家日本』と『社會日本』)」, 『仁科健一・館野哲 편, 『한국인들이 본 일본(韓國人から見た日本)』, 新韓國讀本7, 社會評論社, 1998년.
19. 『조선일보』, 1986년 10월 22일자.
20. 일본어판의 제목은 『슬픈 일본인(悲しい日本人)』.
21. 전여옥, 『일본은 없다』, 16~17쪽, 지식공작소, 1993년.
22. 전여옥, 같은 책, 138~143쪽.
23. 전여옥, 같은 책, 101쪽.
24. 星野命, 「개인 차원의 문화 마찰에 대해(個人レベルの文化摩擦について)」, 大林太郎 편, 『문화 마찰의 일반 이론(文化摩擦の一般理論)』, 299쪽, 巖南堂書店, 1982년.
25. 에토 신키치(衛藤藩吉)는 이 양면성 콤플렉스를 '애증후군(love-hate

syndrome'이라고 불렀다. '애증후군'이란 문화 마찰이 격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때 '사랑'은 호기심, 경탄, 외경, 위협, 굴종, 심취로 전개되고 '증오'는 경멸, 자인감, 우월감, 차별, 접촉 거부, 절멸에 대한 충동으로 전개된다고 한다. 다음의 지적은 중요하다. "심취나 굴종은 얼핏 마찰의 가장 격렬하지 않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심취나 굴종이라는 상태는 지기가 속해 있는 문화와 그 가치의 부정, 즉 지어의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복합심리라고 또 그때 의식 아래에서는 격렬한 긴장이 존재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국민 심리를 보면 정당하게 상대국 국민을 이해할수록 애증후군은 적어진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와 미국 등은 끊임없이 이해의 충동으로 분쟁을 하면서도 오해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애증을 불태우는 일이 적다. 그러나 폴란드와 러시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복합심리로 인한 오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원래 '오해' 자체는 인간 사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중략) 그러나 그것이 이 병적 콤플렉스가 되면 종종 국제 사회에서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일부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병적인 오해와 그 결과로 생기는 일방적인 심취와 굴종. 그리고 같은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기묘할 정도로 우월감을 지니고 대담하게 비판을 계속하는 현상 등은 이베올로기적인 입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심리적으로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격렬한 사랑과 증오가 복합된 심리에서, 사랑은 북한을 향해 표현되고 증오는 이따금 한국을 향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衛藤藩吉, 『일본을 둘러싼 문화 마찰(日本をめぐる文化摩擦)』, 18~20쪽, 弘文堂, 1980년]

제3장

1. 조선어학회 편, 1945·1946년.
2. 이승만이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 모든 남녀 동포가 교육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다 알